

# 노인가계의 식료품비 지출규모 및 관련요인 분석: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의 비교를 중심으로

Food Consumption Expenditures and Their Determinants:  
A Comparison of Employed & Non-Employed Elderly Households

국민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강 사 이 윤 금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okmin University

Lecturer: Yoon Geum Lee

##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관련연구의 고찰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Using the 1996 National Survey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employment status on food expenditure patterns of elderly households. The effect of employment status of elderly households was not significant in food-at-home expenditures, while it was significant in food-away-from-home expenditures.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come, age, family size, education, number of earners, home ownership, and region were found to influence the food-at-home expenditures of elderly households, whereas income, family size, number of earners, and education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food-away-from-home expenditures of elderly households.

### I. 서론

1999년은 UN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이다. 노인인구의 증가현상은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한국사회에서

도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전 및 보건위생의 개선, 사망률의 감소로 노인인구의 증가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구구조에 있어서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가

되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이고, 그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한다(서정호, 1998). 우리나라에서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 3.1%, 1980년 3.8%, 1990년 5.1%로 증가하였고, 1998년 현재 6.6%로, 이러한 비율은 2000년에 7%를 넘어서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며, 2022년에는 14.3%로 고령사회가 되고, 2030년에는 19.3%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통계청에서는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1998).

본 연구는 1996년 소비실태조사의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노인가계의 식료품비 지출규모와 노인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계의 식료품비는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를 막론하고, 소비지출항목 중 그 지출규모 면에서나 지출구성비 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가계의 필수적 욕구충족을 대변하는 비목으로서의 식료품비에 대한 노인가계의 지출규모와 노인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간의 관계를 분석함은 다가오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노인가계들 간에도 경제적 지위상 심각한 격차가 있고, 그 중 가구주의 취업지위는 근로소득유무와 관련되어 노인가계의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성영애, 1994). 따라서 가구주가 취업상태인 노인가계와 가구주가 비취업상태인 노인가계간에 식료품비의 지출규모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더욱이 평균수명의 연장, 노인들의 건강수준 향상, 고령근로자의 교육수준 향상과 이에 따른 그들의 의식변화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취업노인가계의 수가 증가하리라고 예측(김태현, 1999)되므로, 취업노인가계의 외식에 대한 지출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고령화시대의 취업노인증가에 따른 외식비의 수요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노인가계의 경제생활과 관련된 연구는 노인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한 연구(문숙재, 김순미 & 김영정, 1996)와 은퇴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소득, 지출 및 자산에 관한 연구(김연정, 1998),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구조를 비교한 연구

(성영애 & 양세정, 1997)가 있었다. 그러나, 가계의 필수재로서 노인가계의 건강생활과 관련이 있으며 소비지출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항목으로서의 식료품비 지출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고 특히,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의 식료품비 지출을 중심으로 이들의 차이와 유사성을 밝혀낸 연구는 거의 없다.

노인가계의 식료품비 지출규모 및 식료품비 지출구조를 이해하고, 노인가계의 어떠한 사회경제적 특성이 이들의 가정내식료품비 및 외식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것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인구의 노령화에 대비한 정부의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노인가계를 연구하는 가계경제학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간의 식료품비 지출규모의 차이를 밝히는 것은 고령화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다양한 노인관련 식료품 산업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식품생산업, 식품서비스산업 마케팅전략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 II. 관련연구의 고찰

### 1. 노인가계의 식료품비 변화추이: 1982-1998

노인가계의 식료품비의 변화추이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에서 매년 제공하고 있는 단순통계자료로 파악할 수 있다. <표 1>은 60세 이상 노인가계의 1982-1998년 기간의 월평균 식료품비 지출액과 지출구성비가 변화되어온 추이를 나타낸다.

<표 1>을 보면, 총소비지출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엔겔계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1982년에 46.38%였으나, 1988년 40.50%, 1995년 34.83%, 그리고 1998년 33.25%로 감소해왔다. 그러나 식료품비목의 세부 구조에 있어서는 가정내식료품비와 외식비의 지출규모 측면에서 두 비목 모두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한편 지출구성비에 있어서는 가정내식료품비는 1982년 44.73%에서 1998년 25.63%로 감소한 반면에 외식비는 1982년 1.65%에 불과하였으나, 1988년이래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IMF가 발

〈표 1〉 노인가계의 식료품비 지출액 및 구성비 추이: 1982~1998

(단위: 원, %)

연도	가정내식료품		의 식		총 식료품	
	지출액	구성비	지출액	구성비	지출액	구성비
1982	42,129 <sup>a</sup>	44.73 <sup>b</sup>	2,315	1.65	44,444	46.38
1983	38,336	42.81	2,730	1.97	41,066	44.78
1984	46,350	43.06	5,512	2.36	51,862	45.42
1985	46,638	43.40	2,962	2.00	49,600	45.40
1986	52,293	38.42	4,463	2.30	56,756	40.72
1987	63,410	39.23	4,919	2.59	68,329	41.82
1988	73,638	36.17	13,406	4.33	87,044	40.50
1989	79,882	29.51	22,207	5.92	102,089	35.43
1990	101,670	32.31	23,032	5.65	124,702	37.96
1991	121,305	33.73	24,712	6.06	146,017	39.79
1992	142,111	27.21	47,996	7.18	190,107	34.39
1993	147,278	28.28	49,663	7.29	196,941	35.57
1994	189,464	29.25	70,759	8.65	260,223	37.90
1995	199,866	26.17	81,476	8.66	281,342	34.83
1996	240,734	25.45	111,718	9.39	352,452	34.84
1997	248,620	25.39	125,268	10.14	373,888	35.53
1998	245,870	25.63	98,723	7.62	344,593	33.25

a: 1998년 화폐가치로 환산한 액수임.

b: 지출액/총소비지출

생한 1997년에 최고점인 10.14%에 이르렀으며 1998년에는 7.62%로 1993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가계의 식료품비의 월평균 지출액과 지출구성비의 추이를 17년간의 자료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노인가계의 총소비지출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앵겔계수는 계속해서 감소해왔고, 이로써 노인가계의 생활의 질이 향상되어온 것을 추론해볼 수 있다. 또한 지출규모면에서 가정내식료품 및 외식비 모두 증가하여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국가경제성장애 따른 가계의 소득증대가 노인가계의 식료품 소비지출의 양적 측면에서의 증가를 야기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성비면에서 가정내식료품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외식비의 경우는 1982년부터 IMF전인 1997년 까지의 기간동안 거의 6배 증가하여 노인가계의 식료품 소비구조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어왔음을 알 수 있다.

## 2. 선행연구의 고찰

성영애·양세정(1997)은 통계청이 실시한 1994년도 도시가계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구조를 비교하였는데 특히 식료품비 지출을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노인가계의 경우 총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 지출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38.5%였고, 가구주가 60세 미만인 비노인가계의 경우는 식료품비 지출구성비가 33.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노인가계가 비노인가계에 비해 식료품비 지출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가구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식료품비의 지출 비중이 커짐을 시사한다.

김연정(1998)은 1994년도 한국가계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취업노인가계와 은퇴노인가계의 지출비목

을 비교하였다. 취업노인가계는 은퇴노인가계에 비해 피복 및 신발비, 교양오락비, 전기통신비, 연료비 등 선택재적 지출비목에 더 많은 지출액을 보였으나 반면에 의료비의 경우는 은퇴노인가계가 취업노인가계에 비해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소비지출 중 총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은퇴노인가계가 취업노인가계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 영결계수의 의미로 보아 은퇴노인가계의 생활수준이 낮다고 지적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가구주의 취업상태에 따라 노인가계의 식료품비 지출 및 주요소비지출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것임을 시사한다.

Hitschler(1993)는 노인가계를 노인전기(65-74세)와 노인후기(75세이상)로 나누어 식료품비를 조사하였는데 가정내식료품비 및 외식비의 지출에 있어서 노인전기 노인층이 노인후기 노인층보다 더 많이 지출하여 연령이 낮은 노인층에서 전반적으로 식료품비 지출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독신노인가계를 연구한 Axelson과 Penfield(1983)의 연구에서 연령과 가정내식료품비 지출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연령과 외식비 지출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교육수준은 외식비에 정적 영향력을 보였고, 소득도 외식비 지출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독신노인의 연령증가는 가정내식료품 수요를 증가시키며, 독신노인의 교육수준 및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외식비 수요는 증가하였다.

Rubin & Niewiadomy(1994)는 1986-1987 CES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 연령이 50세 이상인 가계를 취업가계와 은퇴가계로 구분하여 두 집단간의 소비지출패턴의 차이점을 규명하고자 하였는데, 노인의 취업상태가 소비지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의하면, 은퇴노인가계는 외식을 사치재로 여기며 지출을 하였으나, 취업노인가계는 외식을 사치재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취업노인가계일수록 외식에 대한 선호성향이 높음을 시사한다.

McConnel과 Deljavan(1982)은 가구원수가 은퇴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외식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것으로 보고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외식비 지출은 가구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구주의 취업상태를 막론하고 가구원수의 증가는 노인가계의 외식비 지출규모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Wang, Mok, & Fox(1995)는 노인가계의 취업상태가 가정내식료품비 및 외식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 가구주의 노동시장시간수는 노인가계의 가정내식료품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노동시장시간수가 증가할 때 외식비 지출이 증가하였다. 그외 노인가계의 가정내식료품비 지출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교육수준, 거주지역, 가구원수였고, 외식비 지출의 경우는 가계소득, 인종, 교육수준 등이었다. 또한 Moehrle(1990)은 노인의 취업상태에 따라 소비지출패턴이 달라지는가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취업노인가계는 저소득층 비취업노인가계보다 소비규모가 25%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가구주 연령, 가구주의 취업상태, 가계소득,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원수 등은 가정내식료품비 및 외식비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알 수 있고, 특히 가구주의 취업상태는 노인가계의 외식비 지출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연구문제가 설정되었다.

첫째, 노인가계의 식료품 비목별 지출경향을 알아본다. 둘째, 노인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식료품비 지출규모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가구주의 취업상태가 노인가계의 식료품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한다. 넷째, 각 노인집단(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의 식료품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알아본다.

2. 자료 및 표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1996년 가구소비실태 조사의 기초자료이다. 통계청에서 5년을 단위로 실시하는 본 자료는 전국 비농가를 대상으로 수입과 지출, 연간소득, 저축부채, 내구재보유현황 등 가계의 생활수준 및 실태에 관한 종합적 자료이다(통계청, 1997). 본 연구의 대상은 가구주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노인가계로서 단독노인가구가 전체의 52.4%

이고 부부노인가계나 기타 가구원과 동거하는 가계는 전체의 47.6%를 구성하고 있다. 조사대상 노인가계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취업노인가계의 경우 비취업노인가계에 비해 가구주 연령이 더 낮으며 가족수는 더 많으며, 취업인수도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취업노인가계는 60~64세 연령의 노인이 거의 50%에 이르고, 비취업노인가계는 약 58%가 70세이상이었다. 가구주 교육수준에 있어서 두 집단 모두에서 무학이 많았고, 자가

<표 2> 조사대상 노인가계의 일반적 특성

연속변수	집 단		취업노인가계 (n=1,014)		비취업노인가계 (n=2,458)		전체노인가계 (n=3,472)	
	Mean	SD	Mean	SD	Mean	SD		
가구주연령	65.9	4.8	71.1	6.4	69.6	6.4		
가족원수	1.7	0.8	1.5	0.7	1.5	0.8		
취업인수	1.1	0.3	0.03	0.2	0.3	0.5		
<b>빈주행변수</b>	<b>N</b>	<b>%</b>	<b>N</b>	<b>%</b>	<b>N</b>	<b>%</b>		
가구주 연령:								
60~64세	494	48.7	394	16.0	888	25.6		
65~69세	304	30.0	646	26.3	950	27.4		
70~74세	154	15.2	764	31.1	918	26.4		
75세 이상	62	6.1	654	26.6	716	20.6		
가구주 교육수준:								
무학	308	30.4	1156	47.0	1464	42.2		
초등학교졸업	328	32.3	676	27.5	1004	28.9		
고등학교졸업	232	22.9	486	19.8	718	20.7		
대학이상	146	14.4	138	5.6	284	8.2		
주택소유:								
자가	702	69.2	1840	74.9	2542	73.2		
입대	312	30.8	618	25.1	930	26.8		
결혼상태:								
배우자유	590	58.2	874	38.0	1524	43.9		
배우자무	424	41.8	1524	62.0	1948	56.1		
거주지역:								
서울·광역시	456	45.0	874	35.6	1330	38.3		
중소도시	558	55.0	1584	64.4	2142	61.7		
가구주성별:								
남성	508	50.1	970	39.5	1478	42.6		
여성	506	49.9	1488	60.5	1994	57.4		
가구주 직업:								
관리전문직	102	10.1	NA	NA	102	10.1		
생산직	544	53.6	NA	NA	544	53.6		
자영업	368	36.3	NA	NA	368	36.3		

\* NA: 해당사항 없음을 의미.

소유자들이 많았다. 한편, 취업노인가계의 경우 부부 노인가계가 많았으나, 비취업노인가계는 무배우자인 가계가 62.0%나 되었다. 취업노인가계의 직업유형으로 생산직이 가장 많았다.

### 3. 분석모델

노인가계의 식료품비(가정내식료품, 외식) 지출규모와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실증분석 모델은 다음과 같다.

식료품비 = f (가구주 취업상태, 가계소득, 가구주 연령, 가구원수, 취업인수, 가구주교육수준, 결혼상태, 자가소유여부, 거주지역)

본 연구의 분석모델에서 종속변수는 월평균 식료품비 지출액을 의미하며, 노인가계의 식료품비는 총 식료품비 지출에 대한 분석보다는 가정내식료품비와 외식비로 나누어 각각의 지출규모, 구성비, 그리고 이들 두 비목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노인가계의 식료품비 지출규모에 미치는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고려한 변수는 가구주의 취업상태, 가계소득, 가구주연령, 가구원수, 취업인수, 가구주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거주지역 등이다. 여기서 가계소득은 노인가계의 소득에 관한 자료가 불충실하여 향상소득의 개념을 사용하여 총소비지출

을 가계소득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그 외 여러 독립변수들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의 원자료가 제공하는 한도내에서 분석모델에 포함되었다.

### 4. 통계분석방법

가구주의 취업상태 및 가계특성이 가정내식료품비 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기 위하여 Ordinary Least Squares(OLS)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위하여 분석에 포함되는 독립변수간에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한편 외식비의 경우는 이 비목에 지출이 전혀 없는 노인가계가 전체노인가계의 54.4%를 차지하여, 관련변수의 영향력을 Tobit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이러한 모든 절차는 SAS PC program에 의해 이루어졌다.

## IV. 결과 및 해석

### 1. 노인가계의 식료품비 비목별 지출규모 및 구성비

<표 3>은 분석대상 노인가계의 식료품비 비목에 대한 월평균 지출액과 지출구성비를 나타낸다. 전체 노인가계는 총식료품비로 월평균 186,601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가정내식료품비로 월평균 165,891원을 지출하였으며, 외식비로는 20,710원을 지출하였다.

가구주 취업상태에 따른 식료품비에 대한 월평균

<표 3> 노인가계의 식품비목별 월평균 지출액 및 구성비

집 단	취업노인가계 (n=1,014)		비취업노인가계 (n=2,458)		전체노인가계 (n=3,472)	
	평균 지출액	지출액/ 총소비지출	평균 지출액	지출액/ 총소비지출	평균 지출액	지출액/ 총소비지출
총소비지출	720,312	-	528,043	-	584,196	-
총식료품비	240,222	33.3	164,480	31.1	186,601	31.9
· 가정내식료품	203,142	28.2	150,523	28.5	165,891	28.4
· 외 식	37,080	5.1	13,957	2.6	20,710	3.5

a : 총소비지출, 총식료품비, 가정내식료품비, 외식비 등의 지출수준을 t-검정한 결과, 이들 항목에 있어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출액과 지출구성비를 비교해보면, 취업노인가계는 총식료품비로 월평균 240,222원을 지출하였고, 이 중 가정내식료품비로 월평균 203,142원, 외식비로는 37,080원을 각각 지출하였다. 한편

비취업노인가계의 경우 총식료품비로 월평균 164,480원을 지출하였고, 가정내식료품비로 월평균 150,523원, 외식비로는 월평균 37,080원을 각각 지출하였다. 취업노인가계의 경우 외식비가 총식료품비의 15.4%를 차지하고 있으나, 비취업노인가계는 8.5%에 불과하여 예상대로 취업노인가계에서 전체 식료품비 지출중 외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큰 것을 알 수 있다.

총소비지출에서 총식료품비가 차지하는 구성비에 있어서 전체노인가계는 31.9%, 취업노인가계는 33.3%, 비취업노인가계는 31.1%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 도시근로자가계의 28.7%보다 높은 수치이다(이윤금 & 양세정, 1999). 이러한 결과는 생애주기 중 노년기에 식료품비에 대한 비중이 큰 것을 시사한다.

## 2. 노인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식료품비 지출규모

〈표 4〉는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식료품비 지출규모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이다. 노인가계의 가정내식료품비와 외식비 지출에 있어서 가구주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원 수, 자가소유, 결혼상태, 거주지역, 가구주 성별 등 고려된 모든 가계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노인가계의 가정내식료품비 지출은 70세미만과 70세이상인 집단간에 차이가 있으나, 외식비 지출은 75세이상인 집단에서 현격히 지출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비취업노인가계는 가정내식료품비 및 외식비 지출에 있어서 60~64세와 65~69세인 집단간에 별 차이가 없었으나 70세미만, 70~75세, 75세이상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 모두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내식료품비 및 외식비의 지출규모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외식비의 경우는 교육수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

취업노인가계의 대학이상은 월평균 110,332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무학인 취업노인가계의 월평균 지출의 거의 11.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노인가계의 외식비의 경우도 대학이상은 무학인 노인가계의 12.1배였다.

두 집단 모두에서 가구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가정내식료품비와 외식비의 지출규모가 증가하였고, 자가소유가계는 임대가계에 비해 두 비목 모두에서 높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상태는 노인가계의 식료품비 지출에 차이를 주었는데, 두 집단 모두에서 배우자가 존재할 때 가정내식료품비 지출이 높았으며 외식비규모도 현저하게 높았다.

거주지역에 따른 식료품비 지출규모의 차이를 보면, 두 집단 모두 서울·광역시에 거주할수록 중소도시에서 거주하는 경우보다 가정내식료품비 및 외식비 비목에서 그 지출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 성별에 따른 지출규모의 차이를 보면, 취업노인가계의 경우 가구주가 남성일 때 여성인 경우보다 가정내식료품비 지출이 높았고, 외식비에 있어서도 그 지출규모가 현격히 높았다. 비취업노인가계의 경우도 남성가구주가 여성가구주에 비해 두 비목 모두에서 지출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 3. 전체노인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식료품비 지출규모

〈표 5〉는 전체노인가계의 가구주 취업상태 및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가정내식료품비 및 외식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가정내식료품비 지출에 대한 결과는 OLS(Ordinary Least Squares)방법에 의한 중회귀분석의 결과이나, 조사대상 노인가계의 54.4%가 외식비 지출이 없었으므로 외식비는 Tobit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가정내식료품의 경우 R<sup>2</sup>값이 0.41로서 사용된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한 가정내식료품비의 설명력이 41.1%였다. 외식비의 경우는 Chi-square 값이 37738.24로서 유의수준 .001에서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외식비지출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표 4〉 사회경제적 변수별 식료품비 지출규모

변 수	구 분	취업노인가계 (n=1,014)		비취업노인가계 (n=2,458)	
		가정내식료품	외식	가정내식료품	외식
가구주연령	60~64세	216,969 a	41,982 a	182,120 a	17,829 a
	65~69세	212,356 a	37,400 a	191,837 a	19,644 a
	70~74세	166,288 b	32,465 a	140,822 b	13,348 b
	75세이상	139,334 b	7,914 b	102,012 c	6,719 c
F값		6.14**	4.05**	30.09**	14.25**
가구주 교육수준	무학	115,678 a	9,749 a	91,890 a	4,370 a
	초등학교	178,384 b	24,166 b	164,283 b	11,588 b
	고등학교	260,768 c	45,524 c	231,456 c	29,081 c
	대학이상	351,707 d	110,332 d	288,973 d	52,792 d
F값		85.11**	78.87**	104.55**	111.28**
가구원수	1인	117,282 a	18,535 a	100,226 a	5,841 a
	2인	256,981 b	47,509 b	212,582 b	21,431 b
	3인	283,896 ac	51,840 b	234,088 b	31,958 c
	4인	316,544 c	84,296 c	250,948 b	62,736 d
F값		66.99**	17.86**	86.13**	75.54**
자가소유	자가	233,260 a	46,731 a	168,190 a	16,090 a
	임대	135,378 b	15,365 b	97,922 b	7,608 b
F값		68.91**	39.08**	65.78**	23.03**
결혼상태	배우자유	267,959 a	53,970 a	221,842 a	25,242 a
	배우자무	112,949 b	13,578 b	106,815 b	7,041 b
F값		226.10**	76.67**	235.52**	138.94**
거주지역	서울·광역시	220,871 a	41,289 a	187,139 a	20,627 a
	중소도시	188,654 b	33,640 a	130,320 b	10,277 b
F값		8.19**	2.61	52.08**	42.06**
가구주성별	남성	278,250 a	64,478 a	212,016 a	25,641 a
	여성	127,737 b	9,574 b	110,437 b	6,341 b
F값		217.53**	156.20**	182.58**	159.69**

\*p&lt;.05, \*\*p&lt;.01, \*\*\*p&lt;.001

〈표 5〉를 보면, 가정내식료품비에 있어서 가구주의 취업상태 가변수의 계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여타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간에 가정내식료품비 지출에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반면에 외식비의 경우는 취업상태 가변수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력을 보이며 이러한 결과는 비취업노인가계가 취업노인가계에 비해 외식비에 지출을 덜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은퇴노인

가계는 외식을 사채제로 여기나, 취업노인가계는 외식을 사치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Rubin & Nieswiadomy(1994)의 연구결과, 그리고 Wang, Mok, & Fox(1995)의 연구에서 가구주의 노동시간수가 증가할 때 노인가계의 외식비지출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그 외에 전체노인가계의 가정내식료품비 지출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가계소득, 가구주연령, 가구원수, 가구주교육수준, 결혼상태, 자가소유, 거주지역



〈표 5〉 노인가계의 식료품비 지출의 관련요인 분석

독립변수	(n=3,472)	
	가정내 식료품비 (OLS 분석) Coefficients(Std.err)	외식비 (Tobit 분석) Coefficients(Std.err)
가구주취업:(취업) <sup>a</sup> 비취업	-23538(12805.1)	-0.273(0.117)*
가계소득	0.12034(0.00349)***	5.4E-7(4.3E-8)***
가구주연령	-915( 446.8)*	0.003(0.005)
가구원수	19292( 4680.5)***	0.211(0.042)***
취업인수	-15471(10719.3)	0.209(0.091)*
가구주학력:(무학)		
초등학교졸	11755( 6608.8)	0.252(0.080)***
고등학교졸	42231( 7871.9)***	0.650(0.085)***
대학이상	50111(10887.2)***	0.993(0.107)***
결혼상태:(배우자무)		
배우자유	30582( 7491.1)***	0.054(0.075)
자가소유:(임대)		
자가	15802( 5903.7)***	-0.034(0.071)
거주지역:(중소도시)		
서울·광역시	23524( 5277.6)***	1.071(0.020)
상수	100290(33672.3)	8.987(0.394)***
	F값 219.82 R <sup>2</sup> .41	Likelihood ratio -2539.57 Chi-square 37738.24*** (df=11)

a: 괄호안은 비교집단

\*p<.05, \*\*p<.01, \*\*\*p<.001

등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정내식료품비 지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노인후기 노인층이 젊은 노인층보다 가정내식료품비 지출이 적다는 선행연구(Hitschler, 1993)의 결과와 일치한다.

노인가계의 외식비 지출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가구주 취업상태외에도, 가계소득이 증가할 때, 가구원수 및 취업인수가 증가할 때,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외식비 지출규모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가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외식비 지출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Axelson & Penfield(1983)와 Wang, Mok, &

Fox(1995)의 결과와 일치한다.

4. 각 노인집단의 가정내식료품비 지출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회귀분석결과

〈표 6〉에서 취업노인가계의 가정내식료품비 R<sup>2</sup>값은 0.47로 사용된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한 가정내식료품비의 설명력은 47%였다. 또한 비취업노인가계의 가정내식료품비 R<sup>2</sup>값은 0.39로 나타나 사용된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한 가정내식료품비의 설명력은 39%임을 알 수 있다.

취업노인가계의 가정내식료품비는 가계소득이 중

〈표 6〉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의 가정내식료품비 지출에 대한 중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	취업노인가계 (n=1,014)	비취업노인가계 (n=2,458)
	Coefficients(Std.err)	Coefficients(Std.err)
가계소득	0.09124(0.00495)***	0.1419(0.00471)***
가구주연령	-838( 903.2)	-1024( 515.9)*
가구원수	13557( 7048.5)*	22242( 6018.1)***
취업인수	12040(13291.6)	-61270(16578.8)***
가구주학력:(무학)		
초등학교졸	6840(11549.1)	10717( 7951.0)
고등학교졸	63995(12840.9)***	24514( 9823.8)**
대학이상	88774(15368.5)***	17652(14999.5)
결혼상태:(배우자무)		
배우자유	44610(12274.7)***	28543( 9293.3)***
자가소유:(임대)		
자가	26009( 9921.6)***	10812( 7223.5)
거주지역:(중소도시)		
서울·광역시	24068( 8620.3)***	20044( 6543.7)***
상수	71330(62768.1)***	81200(39688.2)***
F-ratio	9.93	157.63
R <sup>2</sup>	.47	.39

a: 괄호안은 비교집단

\*p&lt;.05, \*\*p&lt;.01, \*\*\*p&lt;.001

가할수록, 가구원수가 늘어날수록,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자가를 소유할수록, 거주지역이 대도시일수록 그 지출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노인가계의 가정내식료품비를 결정하는 요인들의 경우도 취업노인가계의 결과와 유사하였는데, 즉 가계소득, 가구주연령, 가구원수, 취업인수, 가구주교육수준, 배우자유무, 거주지역 등의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취업노인가계의 가정내식료품비 지출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여타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가구주의 연령증가는 가정내에서 소비하는 식료품비의 수요를 감소시킨다는 의미이다. 이는 이들의 연령증가에 따른 가족수의 감소,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독신가계가 됨으로써 이로 인한 가정내식료품 수요의 감소로 추론할 수 있다.

한편, 비취업노인가계내의 취업인수가 늘어날 때, 가정내식료품비가 감소함은 취업한 가족구성원의 외식수요의 증가가 이들 가계의 가정내식료품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 5. 각 노인집단의 외식비 지출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obit분석 결과

〈표 7〉에서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의 외식비 지출에 대한 tobit 분석결과를 보면, Chi-square 값이 두 모델 모두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포함한 외식비 분석모델이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의 외식비 지출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업노인가계의 경우 소득이 증가할수록, 취업인수가 늘어날수록,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서울·광역시에 거주할수록 외식비 지출규모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취업노인가계의 가구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외식비의 지출규모는 감소하여, 즉 연령이 낮은 취업노인 집단에서 외식수요가 큰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취업노인가계내의 취업인수가 늘어날 때 외식비 지출규모는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타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취업노인가계내에서 취업인수의 증가가 외식비 지출규모를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Axelson과 Penfield(1983)의 결과와 유사하게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외식비 지출규모도 증가하였다. 한편 서울·광역시에 거주할수록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외식비 지출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대도시의 외식산업이 중소도시의 외식산업보다 발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배우자유무나 자가소유여부는 취업노인가계의 외식비 지출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비취업노인가계의 외식비 지출을 결정하는 요인들로 가계소득, 가구주연령, 가구원수, 취업인수, 가구주교육수준 등으로 모두 정적 영향력을 미쳤다. 즉, 소득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취업인수가 증가할수록, 가구주의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비취업노인가계의 외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비취업노인가계에서 가구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외식비 지출이 증가한다는 결과는 McConnel & Deljavan(1982)의 연구결

〈표 7〉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의 외식비 지출에 대한 Tobit 분석결과

독립변수	취업노인가계 (n=1,014)	비취업노인가계 (n=2,458)
	Coefficients(Std.err)	Coefficients(Std.err)
가계소득	4.76E-7(7.16E-8)***	5.58E-7(5.46E-8)***
가구주연령	-0.024(0.012)*	0.012(0.006)*
가구원수	-0.045(0.061)	0.355(0.055)***
취업인수	0.236(0.116)*	0.348(0.151)*
가구주학력:(무학)		
초등학교졸	0.279(0.142)*	0.243(0.094)***
고등학교졸	0.477(0.145)***	0.817(0.104)***
대학이상	1.028(0.161)***	1.008(0.142)***
결혼상태:(배우자무)		
배우자유	0.427(0.132)	-0.165(0.091)
자가소유:(임대)		
자가	0.204(0.093)	-0.036(0.088)
거주지역:(중소도시)		
서울·광역시	0.204(0.093)*	0.013(0.069)
상수	10.924(0.795)***	7.877(0.459)***
Likelihood ratio	-910.41	-1605.26
Chi-square (df=11)	13519.96***	23970.60***

a: 괄호안은 비교집단

\*p<.05, \*\*p<.01, \*\*\*p<.001

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비취업노인가계의 가구주 연령의 tobit 계수가 (+)로 나타나, 취업노인가계의 계수 (-)와는 반대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두 집단 내에서 각각 연령의 영향력이 외식비 지출규모에 다르게 작용함을 의미하고 이는 취업노인가계의 경우는 연령이 낮은층에서, 비취업노인가계의 경우는 연령이 높은층에서 외식비수요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노인가계의 가구주의 취업상태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총식료품비, 가정내식료품비, 외식비의 지출규모 및 구성비의 일반적 경향을 조사하고, 가구주의 취업상태가 노인가계의 가정내식료품비 및 외식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또한 각 노인집단(취업 및 비취업) 내에서 이들의 가정내식료품비와 외식비 지출규모를 결정하는 가계특성을 파악해봄으로써,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가계의 복지정책을 위한 정책대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취업노인가계는 총식료품비로 취업노인가계의 총식료품비 지출의 68.5%를 지출하고 있었고, 특히 비취업노인가계의 가정내식료품비(150,523원)는 취업노인가계 가정내식료품비의 74.1%에 해당되고, 이들의 외식비(13,957원)는 취업노인가계 외식비의 37.6%에 해당된다. 따라서 비취업노인가계는 취업노인가계에 비해 전반적인 식료품 지출규모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세부비목에 있어서 두 집단 간에 가정내식료품에 대한 수요에 있어서의 차이보다 외식에 대한 수요에 있어서의 차이가 더 큰 폭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에 식료품 수요구조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여타 가계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 간에 가정내식료품비 지출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외식비 지출에는 차이가 있어 취업노인가계가 비취업노인가계에 비해 외식비 지출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가정내식료품비 지출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의 특성은 취업노인집단에서는 가계소득, 가구원수, 가구주학력, 결혼상태, 자가소유, 거주지역 등이었고, 비취업노인집단에서는 가계소득, 가구주연령, 가구원수, 취업인수, 가구주학력, 결혼상태, 거주지역 등이었다. 따라서 가계소득, 가구원수, 가구주학력, 결혼상태, 거주지역 등의 변수들은 두 집단 모두에서 이들의 가정내식료품비 수요를 예측케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외식비에 대한 Tobit 분석결과를 보면, 두 집단 모두에서 가계소득, 가구주 연령, 취업인수, 가구주 교육수준은 유의미한 변수였다. 그러나 여타가계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구주 연령이 취업노인가계에서는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 반면 비취업노인가계에서는 정적(+)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취업노인가계의 외식비지출이 비취업가계에 비해 많다는 것은 <표 5>를 통해 알 수 있으나, 각 가계유형내에서 여타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연령이 외식비수요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두 집단 모두에서 취업인수가 늘어날 때 외식비 지출규모가 증가함은 노동시장참여가 외식 수요 증가에 정적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영결계수에 있어서 전체노인가계(31.9%), 취업노인가계(33.3%), 비취업노인가계(31.1%)의 수치가 이윤금 & 양세정(1999) 연구의 도시근로자가계(28.7%)의 수치보다 높게 나타나 생애주기에 있어서 노년기에 전체 소비지출중에서 식료품비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인구중 노인의 수와 비율이 증가하는 고령화시대에는 식료품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는 커질 것을 시사하며, 따라서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식료품산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예상대로 취업노인가계의 외식비는 지출규모나 구성비면에서 모두 비취업노인가계에 비해 많았고, 여타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취업노인가계의 외식비 규모는 비취업노인가계에 비해 높았다. 이

러한 결과는 평균수명의 연장, 노년층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경제활동인구로 참여하는 취업노인수가 더 많으리라는 고령사회에서 외식의 수요가 지금보다는 더 클 것을 시사하므로 취업노인을 대상으로한 외식 산업의 발달이 예측된다.

셋째, 외식비의 경우에 취업노인가계에서는 가구주 연령이 늘수록 외식비는 감소하였으나, 비취업노인가계에서는 가구주 연령이 늘 때 외식비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취업노인가계의 평균연령(71.1세)이 취업노인가계의 평균연령(65.9세)에 비해 높은 것을 감안해볼 때, 은퇴한 고령의 노인가계에서 외식비에 지출이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에서의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노년후기에 오히려 외식에 대한 선호가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취업노인수의 증가에 따른 외식산업개발도 필요하겠지만, 고령화 사회에서 전체 노인가계를 위한 다양한 외식관련 실버산업개발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가구주의 소득 및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같은 인적자본은 노인의 체력 및 건강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필수재로서의 식료품비 지출의 결정요인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정내식료품비 및 외식비 지출규모가 낮다는 결과를 고려해볼 때, 노인가계의 복지정책의 측면에서 이러한 가구주 특성을 가진 노인가계를 대상으로 식생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영양프로그램의 보급 및 지원이 저소득층 복지정책 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미처 밝히지 못한 것으로서 앞으로의 노인가계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는 노인가계의 식료품비에 대한 소비지출을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러나, 가계의 소비지출항목 중 식료품비목 외에 주요소비지출 비목들을 분석해봄으로써, 전반적인 노인가계의 욕구 및 수요를 이해하고 미래의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소비자의 소비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 본 연구는 노인가계를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분

석하였으나,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가 길어지는 추세에서 노년후기의 소비지출구조를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이들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이해하는데 심도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노년기를 노년전기(65세~75세)와 노년후기(75세이상)로 나누어 이들의 소득과 소비지출구조를 이해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특성중의 하나는 남녀간 평균수명과 사망률 차이에서 비롯된 여성노인단독가구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집단을 타겟으로한 복지프로그램의 개발은 중요하다고 보므로, 여성단독노인가계의 소득 및 소비지출구조를 세세하게 분석하는 후속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김태현(1999). 노후생활준비교육을 위한 대토론회,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자료집, 1-22.
- 김연정(1998). 은퇴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소득, 지출 및 자산의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7), 57-67.
- 문숙재 · 김순미 · 김연정(1996).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223-235.
- 성영애(1994). 미국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4), 31-43.
- 성영애 · 양세정(1997).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구조 및 관련요인의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5), 103-116.
- 서정호(1998). 한국 실버산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금 · 양세정(1999). 식생활비 지출규모와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간의 관계분석-도시근로자 가계를 대상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8(1), 97-108.
- 통계청(1998). 장애인구추계.
- 통계청(1997). 가구소비실태조사.
- 통계청(1998). 도시가계연보. 1982-1998.
- Axelson, M. & Penfield M.(1983). Factors Associated

- with Food Expenditures of Elderly Persons Living Alone. *Home Economics Research* 12 (2), 228-236.
- Hitschler, P.(1993). Spending by Older Consumers: A Comparison between 1980 and 1990, *Consumer Interest Annual* Vol. 39, 318-323.
- McConnel, C. & Deljavan, F.(1983). Consumption Patterns of the Retired Household. *Journal of Gerontology* 38(4), 480-490.
- Moehrle, T.(1990). Expenditure Patterns of the Elderly: Workers and Nonworkers. *Monthly Labor Review*, 113(5), 34-41.
- Rubin, R. & Nieswiadomy, M.(1994). Expenditure Patterns of Retired and Nonretired Person. *Monthly Labor Review*, April, 10-21.
- Wang, H., Mok, J., & Fox, M.(1995). Food Expenditure Patterns of Elderly Consumers: A Question of Time Allocation. *Family Economics and Resource Management Biennial* Vol.1, 185-191.